

화자지향 심리술어와 증거성 표지 '-더'의 1인칭 제약

허세문* †
서울대학교

임동식‡
홍익대학교

박유경§
University of Delaware

Semoon Hoe, Dongsik Lim, and Yugyeong Park. 2015. The 1st person restriction on Korean evidential marker '-te': focusing on subject-oriented psych-predicates. *Language and Information* 19.2, 81-107. This paper explores the 1st person restrictions on the evidential *-te*, focusing on the cases where it appears with the speaker-oriented psych-predicates in Korean. It has been widely discussed that the 1st person restriction can be freely circumvented when *-te* is used with the speaker-oriented psych-predicates. However, based on the novel observation that such an obviation can be varied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the subordinate clauses which modify the evidential sentences, we propose that the 1st person restriction sh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situation-based felicity condition of *-te*, as discussed in Lim (2014): it arises if the situation where the speaker acquires evidence cannot be the same as, or be included by, the situation where the prejacent is true. To show this, we discuss how the meaning of the speaker-oriented psych-predicates interacts with the felicity condition of *-te*, and how this interaction makes the distinctive obviation environments of the 1st person restriction on *-te*, unlike other types of predicat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Delaware)

Key words: Korean direct perceptive evidential *-te*, subject-oriented psych-predicates, information situation, evaluation situation

* 논문 수정에 도움을 준 세 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시간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여전히 남아 있는 오류는 모두 필자들의 것이다.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E-mail: geisthoe@gmail.com

‡ 04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E-mail: dlim@hongik.ac.kr

§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Delaware. E-mail: yugyeongpark@gmail.com

1. 서론: 증거성 표지 ‘-더’의 1인칭 제약

한국어의 어미 ‘-더’는 증거성(evidentiality)을 보이는 표지로 연구되어 왔다(송재목 2007, 2009, Lim 2010, 2014, Lee 2011a, 2011b, 2013; cf. Chung 2007, 2011 등).

- (1) a.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b. 맥락: 장님인 화자가 어제 영희를 만났다. 지금 그가 말하길,
 #영희가 빨간 바지를 입고 있더라. (Lee 2011a)

예를 들어 (1a)와 같은 문장은 ‘화자가 과거에 ‘철수가 학교에 가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경우, 증거의 획득은 화자의 직접 지각 (direct percep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송재목 2007, 2009, Chung 2007, Lim 2010, 2014, Lee 2011a, 2011b, 2013 등). 예를 들어 (1b)에서는 장님인 화자가 어제 영희가 어떤 색의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 얻기 어려울 것이므로, ‘-더’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Lee 2011a). 이러한 입장에서 ‘-더’는 일종의 직접 지각과 관련된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어 왔다 (송재목 2007, 2009, Lim 2010, 2014, Lee 2011a, 2011b, 2013 등).

이러한 ‘-더’의 의미적인 특성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인칭 제약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김차균 1980, 송재목 2007, Sohn 1975, Chung 2007, 2011, Lee 2011a, 2011b 등).¹

- (2) a. 철수가/내가/#내가 학교에 가더라.²
 b. 영희가/내가/#내가 테니스를 치더라. (Lee 2011a)

(2)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더’가 사용된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적절한 문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더’의 1인칭 제약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더’의 1인칭 제약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의 예문에 기술되어 있듯이 다양한 환경에서 1인칭 제약이 약화될 수 있다 (김차균 1980, 송재목 2007, Sohn 1975, Chung 2007, 2011, Lee 2011a, 2011b 등).

- (3) a. 나 혼자만 학교에 가더라. (Sohn 1975)
 b. 세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춤을 잘 추더라. (김차균 1980)
 c. 내가 영희보다 빨리 달리더라. (Lee 2011a)

1 어말 어미 ‘-네’의 경우도 유사한 1인칭 제약이 나타나지만 (송재목 2007, Chung 2007, Lee 2011a, 2011b 등)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 한 익명의 심사자가 묻은, ‘내가 학교에 가더라’가 통사적으로 이상한지 의미적으로 이상한지의 여부에 관해, 일단 본고에서는 후자로 보아 #를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내가 학교에 가고 있더라”의 자연스러움의 여부에 관해, 동일한 심사자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지만, 현재 필자들의 관점에서는 자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단 본고에서는 화자 지향 심리 술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a)의 경우와 같이 초점사 '-만'이 화자 주어와 연결된 경우 '-더'의 1인칭 제약이 약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3b)와 (3c)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급이나 최상급 등을 통해 '화자'가 다른 객체와 비교되는 환경에서도 '-더'의 1인칭 제약이 약화된다.

이와 더불어 '술어의 속성'도 '-더'의 1인칭 제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ung 2007, Lee 2011a 등). 다음 예시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외롭다, 춥다, 괴롭다, 기쁘다'와 같이 경험주가 내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일종의 내적 상태를 기술하는 심리 술어들은 화자가 아닌 대상이 주어로 쓰이면 문장의 문법성이 약화된다 (김세중 1994, 유현경 1998, 허세문&박유경 2015, Lee 1976, Kwon 2014, Park and Hoe to appear 등).

- (4) a. (내가)/#내가/#철수가 외로워!³
- b. (내가)/#내가/#철수가 추워!

이러한 제약은 심리 술어의 경험주가 필수적으로 문장의 화자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4)와 같은 주어의 제약을 '경험주=화자 제약'으로, '경험주=화자 제약을 보이는 심리 술어를 '화자 지향 심리 술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화자 지향 심리 술어는 직접 증거성 표지 '-더'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1인칭 제약과 관련하여 다른 술어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 (5) 그 때(-는), 내가 외롭더라. (Chung 2007: ex. 5a)

(5)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더'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더'의 1인칭 제약이 약화된다 (Chung 2007, 2011, Lee 2011a 등). 특히 Chung(2007, 2011)은 (5)와 같이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사용되는 경우 '-더'가 가지는 1인칭 제약인 완전히 해소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hung(2007, 2011)의 결론은 성급한 면이 있다. 다음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를 바탕으로 한 Chung의 설명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사용된 '-더'가 보이는 1인칭 제약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⁴

- (6) a. 영희가 곁에 없으면 내가 외롭더라.
- b. #영희가 곁에 없을 때 내가 외롭더라.
- c. 영희가 곁에 없을 때마다 내가 외롭더라.

(6)은 '-더'와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사용된 주절이 다양한 부사절에 의해서 수식되는 경우를

3 본 논문에서는 어말 어미로 일종의 '직접성'의 의미를 지니는 '-어' (김병건 2014)가 사용되는 경우로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어말 어미의 성격에 따른 문법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허세문&박유경 (2015)를 참조할 것. 아울러 (4a)에서 "철수가 외로워!"의 문법성 여부에 관한 익명의 심사자의 질문에 관해서는, 특수한 맥락이 없는 자연스러운 사용이 어렵다고 본다.

4 한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6)의 문장의 문법성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본고에서는 필자 및 필자가 문의한 화자들의 판단에 따라 제시된 식의 문법성을 가정하기로 한다.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때, 수식 부사절의 종류에 따라 문법성의 변화가 포착된다. (6a)에서 볼 수 있듯이, 조건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5)와 마찬가지로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나타난 ‘더’의 1인칭 제약이 약화된다. 그러나 (6b)에서 보듯이 시간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1인칭 제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와 다르게 수식절이 시간 부사절이기는 해도 어떤 특정 하나의 시점만을 수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1인칭 제약이 약화되는 모습도 (6c)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이러한 (6)의 대조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여 준다. 우선 ‘더’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1인칭 제약이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의 1인칭 제약이 온전히 화자 지향 심리 술어에 의하여 약화되는 것이라면 왜 (6b)가 비문법적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5)의 ‘그 때와 같은 시간 부사가 (6b)와 같이 특정 지점을 적시하는 것이 일종의 대조적인 시점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조성(contrastivity)은 그 개념상 관련된 다른 대체항(alternatives)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해석될 수 없으므로 (Lee 2006), (5)의 ‘그 때’는 (6c)의 부사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가지는 의미상의 특성이 ‘더’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1인칭 제약을 약화시키는 충분조건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다음과의 대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7) a. #공부를 해야 하면, 내가 학교에 가더라.
 b. #공부를 해야 할 때, 내가 학교에 가더라.
 c. #공부를 해야 할 때마다, 내가 학교에 가더라.

(7)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식절의 성격은 ‘더’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1인칭 제약과 관련된 문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6)과 (7)의 대조는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적인 특성이 ‘더’의 1인칭 제약이 약화될 수 있는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의미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의미적인 특성과 수식절의 성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더’의 1인칭 제약의 본질과 성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더’가 사용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더’의 1인칭 제약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더’의 1인칭 제약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그 장점과 단점을 논의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이론들은 (6)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의 의미를 상황 의미론(situation semantics)에 기반하여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으로 설명한 Lim(2014)의 이론을 3장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더’의 1인칭 제약을 4장에서 새롭게 분석할 것이다. 특히 화자 지향 심리술어의 경험주=화자 제약이 상황 의미론에 기반한 ‘더’의 적정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논의하고, 이를 통해 (6)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술어의 의미적인 특

5 물론 (6c)의 수식절도 의미상 일종의 조건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6a)와 (6c)는 가능 세계(possible world)를 포함한 수식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통해 구분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현실 세계(actual world)만을 수식하는 (6c)를 시간 부사절로 분석할 것이다.

6 본 논문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비문법적’이라는 표현을 문장의 적정성(felicity)이 어겨지는 상황에서도 사용하도록 하겠다.

성에 따라 왜 다른 성격을 가지는 1인칭 제약이 도출되는지 밝히고 이에 기반하여 (6)과 (7)의 대조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5장은 논문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남은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논할 것이다.

2. 기존의 연구와 그 문제점

2.1 Lee (2012): 인식양태의 특성과 ‘단언 강도’

Lee(2011a, 2011b, 2013)는 증거성 표지 ‘-더’를 화자가 ‘-더’를 포함한 문장을 발화하는 시점 이전에 선행 명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지각(perceive)했다는 시제에 대한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 표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의 분포와 의미가 영어의 인식양태 조동사인 ‘must’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이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하 8-12는 모두 Lee 2011a, 2011b에서 발췌).

(8) It must have been raining. *It did not rain.

- (9) a. 비가 오더라. #비가 안 왔어.
- b. 비가 왔더라. #비가 안 왔어.
- c. 비가 오겠더라. #비가 안 오겠어.

우선 (8)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양태 범주의 영향권에 있는 선행명제는 거짓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더’가 사용된 (9)의 문장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양태 종속(modal subordination) 현상에서도 이 둘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0) A thief might break into the house. He would/#will take the silver.

- (11) 맥락: 화자가 어제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방은 난장판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그때 그는 방에 있는 매우 작은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a. 도둑이 들었더라. #그는 키가 작다.
- b. 도둑이 들었더라. 그는 키가 작은 것이 틀림없다.

(10)의 예문은 선행 문장이 양태화(modalized)되었을 때, 뒤따라 나오는 문장도 선행 문장의 영향으로 동일하게 양태화되어야 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더’가 사용되었을 때 이와 동일한 현상이 후행 문장에서 나타난다. (11a)와 (11b)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맥락에서 선행 문장에 ‘-더’가 사용되면 후행 문장은 필수적으로 양태화된 문장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Lee(2011a)는 1인칭 제약에 있어서도 ‘-더’와 ‘must’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12) a. Mary/#I must be going to school.
- b. Mary/#I must be playing tennis.

그리고 (12)에서 나타나는 1인칭 제약은 양태화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 사이의 단언 강도(assertive strength)문제로 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ee(2011a)는 Karttunen (1972)의 입장을 따라서 인식적으로 양태화된 문장인 (13a)은 양태화되지 않은 대응쌍인 (13b)보다 더 약한(weaker) 표현이라고 보았다.

- (13) a. John must have left.
b. John has left. (Karttunen 1972: 12)

이때 Lee (2011a)는 어떤 양태화된 선행명제가 '화자 자신이 행한 행위'라면 선행명제의 진리치가 참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화자가 양태화된 더 약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발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단언 강도의 측면에서 (12a)와 (12b)에서 양태화된 문장과 화자인 주어(=행위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Lee(2011a)는 '더'의 1인칭 제약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어떤 직접적인 지각(perception)의 대상이 화자 자신의 행위가 된다면 이때의 선행명제의 진리치가 참이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양태화된 약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더'가 가지는 인식양태의 속성이 '더'가 사용되지 않은 대응 문장 보다 더 약한 표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Lee(2011a)의 주장은 (3)에서 살펴본 다양한 예외적 현상도 모두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3)의 예들은 모두 '화자' 자신의 '행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상태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화자 자신의 '행위 (혹은 상태)'만을 통해서 문법성이 평가(evaluation)되지 않으므로 양태화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Lee(2011a)의 설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미 Chung(2011)에서도 간략하게 논의되었듯이, 단언 강도에 기반한 설명은 (5)번 예문과 같이 화자 지향 심리술어가 사용된 경우에 왜 1인칭 제약이 약화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Lee(2011a)의 이론을 따르면 이러한 문장의 경우 선행 명제는 '외로움'을 화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증거성 표시 '더'에 의해서 양태화되어 약화된 문장은 사용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Lee(2011a)는 (5)번 예문에서 1인칭 제약이 약화되는 것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의미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더'의 의미와는 무관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간략히 말해서 화자 지향 심리술어가 '화자인 경험주를 가져야 하는 인칭 제약은 이러한 동사 부류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특성 자체가 '더'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해서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우선 Lee(2011a)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must'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인식양태 범주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사용되는 경우에 왜 다음과 같이 단언 강도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 (14) a. 내가 추워.
b. #내가 추운 것이 틀림 없어.

(14b)는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예를 들어 화자가 현재 추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와 같이 아주 특별한 문맥을 가정하지 않으면 문장이 매우 어색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의 비직접성은 Lee(2011a)의 입장을 따르면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관련된 문장인 (14a)가 대응되는 (14b)보다 더 단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식 양태소들과 다르게 왜 '더'가 사용된 경우에만 단언 강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는 (5)의 예외성이 단순히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특성만으로는 분석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다음과 같이 인식양태의 의미가 추가되는 경우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관련된 또 다른 인칭 제약, 즉 경험주=화자 제약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Park & Hoe to appear)도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15) a. #철수가 외로워.
- b. 철수가 외로운 것이 틀림 없어.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험주=화자 제약의 약화가 '더'가 사용된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6) #철수가 춥더라.

이러한 (15)와 (16)의 대조는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더'가 같이 사용되었을 때 적어도 '인칭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상호 영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더'가 다른 인식양태소와 차별된 특성을 보이는지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간접적으로 '더'와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간의 인칭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의미적인 특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에서 관찰되는 문법성의 차이도 Lee(2011a)의 주장으로는 설명되지 못한다. 각 수식절의 특성에 따라 1인칭 제약과 관련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사용된 경우에도 '더'의 의미적인 특성이 간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Lee(2011a)의 주장처럼 단순히 단언 강도와 관련된 제약이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서 약화된다면 (6)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더'의 실질적인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히 화자 지향 술어의 특성에만 기대어서는 1인칭 제약이 약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고, 이는 Lee(2011a)의 단언 강도에 기반한 설명이 '더'의 1인칭 제약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⁷

2.2 Chung(2007): '공간직시과거시제'로의 '더'와 그 '지각 조건'

Chung(2007)은 '더'를 증거성 표지로 보지 않고 특별한 공간직시과거시제 (spatial deictic past tense) 표지로 분석하였다. 간략히 말하면 '더'는 화자가 지각을 수행하는 시공간, 즉 '화자의 지각역(speaker's perceptual field)'이 발화 시점에 선행되어 존재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시공간 내에서 화자는 직접적인 인식자로서 증거를 획득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지닌 시제 표지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그 외 Lee(2011b)에 대해, 또 증거성과 인식양태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른 논의로는 Lee(2010, 2014) 참조.

(17) '-더'의 지각 조건 (Perception Condition on -te)

The speaker of a -te sentence cannot be an active participant but should be a passive perceiver of a given situation. (Chung 2007, (19))

(17)은 어떤 사건의 능동적인 참여자 (예를 들어 행위주)는 화자, 즉 증거에 대한 인식자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Chung(2007)은 '지각'은 일종의 피동적인 인지 행위로 보아야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17)은 '화자의 지각역'이 가지는 특성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Chung(2007)의 주장은 행위와 관련된 술어가 사용된 경우 '-더'의 1인칭 제약이 일어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3)에 기술된 다양한 예외 현상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선행명제가 다양한 사건/상태와의 연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를 단순하게 화자의 행위에 의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⁸

또 (17)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같이 사용된 경우에 '-더'의 1인칭 제약이 왜 약화되는지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심리술어의 경험주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17)과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Chung(2007)은 이렇게 일종의 '의미역'에 기반한 설명이 다음의 대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 (18) a. 내가 외롭더라.
b. #내가 외로워하더라.

Chung(2007)은 Kim(1990)의 분석을 받아들여 '심리 술어+ 어하-'의 형태가 생성되는 경우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이었던 경험주 논항이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로 전환되고 동시에 술어의 의미도 어떤 감정에 대한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18b)의 비문법성이 경험주였던 '화자가 행위주로 바뀌면서 '-더'의 1인칭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Chung(2007)의 주장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19)의 예문은 (18b)의 비문법성이 화자가 행동주성을 가지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19) #내가 외로워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어하-'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자가 주어로 나오지 못한다(Kwon 2014 등). 즉, (18b)의 비문법성은 선행명제 자체가 비문법적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Lee 2011a). 그리고 이는 (18b)가 '-더'의 1인칭 제약과 관련해서 Chung(200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8 Chung(2007)은 (i)과 같은 문장의 비문법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단순히 '행위주'만이 (17)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i) #내가 예쁘더라.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논의는 Chung (2007)을 참조할 것.

이에 더해, Chung(2007)의 분석도 Lee(2011a)의 분석과 같이 (6)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17)과 같이 일종의 의미역 정보에 기반한 분석은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절이 주절을 수식하는 경우에만 ‘-더’의 1인칭 제약이 유지되는 이유를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6b)에서만 주절의 경험주가 일종의 행위주와 같은 의미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상황 의미론과 ‘-더’의 적정 조건

지금까지 Lee(2011a)와 Chung(2007)을 중심으로 ‘-더’의 의미와 이를 통한 1인칭 제약에 대한 분석을 살펴 보았다. 이들의 설명은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결론적으로 화자 지향 심리 술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나타나는 ‘-더’의 1인칭 제약이 어떤 환경에서 약화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새로운 분석을 위하여 상황 의미론(situation semantics)의 관점에서 ‘-더’를 상황들간의 관계로 분석하는 Lim(2014)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이번 장은 증거성 표지와 관련한 상황 의미론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Lim(2014)의 ‘-더’에 대한 상황의미론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3.1 증거성 표지의 적정 조건과 상황 의미론

증거성 표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송재복(2009)은 증거성 표지를 화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즉 ‘정보 획득의 방법’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는 화자가 증거를 직접적으로 획득하였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 증거성과 간접 증거성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직접 증거성의 경우는 정보를 획득한 감각 기관에 따라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간접 증거성은 정보의 질에 따라 추론(inference)과 보고(reported, hearsay) 등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떤 증거를 획득했다는 ‘정보’가 전제(presupposition)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화행(speech act)의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증거성의 의미 층위와 관련된 구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Murray 2009, Faller 2002, Matthewson et al. 2007, Lee 2011b, 2013 등).

한편 Kalsang et al. (2013)은 티베트어의 증거성 표지들을 논의하면서 티베트의 여러 증거성 표지 중 미완료상에서 나오는 두 직접 증거성 표지 ‘*dug*와 *shag*’는 기존의 분류 기준으로는 각각의 특성을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⁹

(20)	a. kha sang	kong	‘khrom	la	slebs	‘dug.
	yesterday	he	market	LOC	arrived	‘dug
	‘Yesterday he arrived at the market.’					
	b. kha sang	kong	‘khrom	la	slebs	shag.
	yesterday	he	market	LOC	arrived	shag

9 Kalsang et al. (2013)은 이와 함께 완료상과만 같이 사용되는 직접 증거성 표지 ‘*song*’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Yesterday he arrived at the market.' (Kalsang et al. 2013: 519)

Kalsang et al. (2013)은 '*dug*과 *shag* 모두 '직접 지각에 바탕을 둔 증거성 표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1)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dug*은 화자가 선행명제와 관련된 사건 전부를 지각하였을 때에, *shag*은 화자가 선행명제와 관련된 사건의 '일부분'만을 지각하였을 때에만 사용되는 분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21) a. chags '*dug*.
broke '*dug*
'It broke/was broken.' (and the speaker saw it break)
- b. chags *shag*.
broke *shag*
'It broke/was broken.' (the speaker sees the pieces but did not see it break)
- (Kalsang et al. 2013: 530, ex. 15)

이에 더해서 Kalsang et al. (2013)은 전체/일부를 구분하는 것으로도 '*dug*과 *shag*의 차이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22)를 통해서 지적하였다.

- (22) a. mdangs dgong bKra shis sngur pa rgyabs kyi '*dug*.
last night Tashi snore AUX IMPF '*dug*
'Last night Tashi was snoring.' (and the speaker heard it)
- b. #mdang dgong bKra shis sngur pa rgyabs kyi *shag*.
last night Tashi snore AUX IMPF *shag*
'Last night Tashi was snoring.' (and the speaker saw/heard it or some result of it)
- (Kalsang et al. 2013: 531, ex. 17)

(22)의 대조는 만약 선행명제의 사건이 단순 사건인 경우 사건의 일부만 화자가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shag*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한 부분/전체의 구분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Kalsang et al. (2013)은 이러한 '*dug*과 *shag*의 다양한 분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성은 관련된 '상황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증거성'은 다음과 같은 정보만을 명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 (23) Evidence is not a semantic primitive and evidentials encode not evidence type or information source per se, but relations between situations. (Kalsang et al. 2013: 518)

상황 의미론(situation semantics)은 명제의 진리치는 가능 세계가 아니라 '상황'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Barwise & Perry 1983, Kratzer 1989, Elbourne 2005 등). 하지만 이때의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도 '상황'의 정확한 정의는 특별한 합의 없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Kratzer 2014), 적절한 형식적인 분석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소 비형식적이지만 많은 경우 '상황'은 '세계의 부분(parts of worlds)'으로 가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모든 관련된 '상황'들의 합이 가능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Kratzer 1989).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어떤 것이든 가능 세계보다 더 작은 것들은 모두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속성의 집합(sets of properties)이나 사건(event), 혹은 사건의 집합(sets of events) 등이 모두 '상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능 세계와 다르게 '상황'은 불완전(impairment)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서로 일관성이 없는 것들까지도 동시에 공존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Kalsang et al. 2013).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Kalsang et al. (2013)은 증거성 표지는 다음과 같은 두 '상황'들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4) a. Evaluation Situation (ES): the situation of which p is true
 - b. Information Situation (IS): the situation that constitutes evidence for p
- (Kalsang et al. 2013: 536, ex. 21)

(24a)를 따르면 ES는 어떤 선행명제의 진리치가 참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2a)의 경우 선행명제는 'Tashi가 코를 골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Tashi가 코를 골고 있는 상황'이 (22a)의 ES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서 보면 ES가 필요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다. (22a)의 경우 ES를 'Tashi가 코를 골고 있고, 철수가 귀를 막고 있고, 빌이 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도 동일하게 (22a)의 선행명제는 참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Kalsang et al. (2013)은 ES가 무한히 커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행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상황(minimal situation)'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다르게 IS는 (24b)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명제와 관련된 증거를 구성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Kalsang et al. (2013)은 어떤 '상황'이 IS가 될 수 있는지는 맥락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IS를 구성하는 '상황'은 필수적으로 선행명제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화자에 의해서 맥락상의 공동기반(common ground)을 통해 확인(identify)된 정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Kalsang et al. (2013)은 (24)를 통해서 티베트어의 두 직접 지각 증거성 표지는 다음과 같은 일종의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25) a. 'dug: IS includes ES¹⁰
- b. shag: ES includes IS

10 Kalsang et al. (2013)은 이와 같은 적정 조건 상의 IS와 ES간의 관계의 또 다른 특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직접/간접 증거성의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i) ES is accessible to IS / IS is accessible to ES → 간접 증거성
- (ii) ES includes IS / IS includes ES → 직접 증거성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 들이고 ‘-다’가 가진 직접 증거성의 특성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Lim(2014)를 참조할 것.

이러한 (25)의 관점에서 (21)의 예문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a)가 의미하는 것은 (21a)의 경우 화자가 어떤 것이 실제로 깨지는 것과 관련된 상황 (ES)을 포함한 어떤 사건 (IS)을 지각하기만 하면 적절한 문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ES는 '어떤 것이 깨진 사건'이 참이 되기 위한 '최소 상황'이기만 하면 된다. 한편 이 때의 IS는 '어떤 것이 깨진 사건과 관련된 상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적절한 IS가 형성된다면 이는 필수적으로 ES를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21a)의 해석은 이러한 적정 조건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21a)와 달리 (21b)는 그 의미상 화자가 실제 어떤 것이 깨지는 사건 그 자체는 지각하지 못하고 깨진 파편만이 남아있는 상태만을 지각하여 알게 된 경우에 *shag*의 적정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IS의 구성 제약을 따르면 이 경우 IS는 '화자'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깨진 파편이 남아 있는 상황'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선행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깨졌다는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ES가 필요하다. 그러나 '깨진 파편이 있다는 상황'에만 기반해서는 (21b)의 선행명제의 진리치가 참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적절한 ES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깨진 사건이 존재한다는 상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21b)의 ES는 '깨진 파편이 있다는 상황 (S₁)'에 더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깨진 사건과 관련된 상황 (S₂)'까지 포함되어야만 선행명제를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 상황'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황 의미론의 관점에서는 S₁과 S₂가 연결되어 ES를 구성한다는 것이 쉽게 설명된다. 상황 의미론의 기본 전제에서 보면 (21b)의 ES의 경우처럼 여러 상황의 '합' (혹은 '분리')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IS는 S₁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21b)는 ES가 IS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25b)를 만족시킨다.

이러한 두 상황의 관계에 기반한 분석은 (22)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 '코를 고는 행위'는 일종의 동형(homogeneous)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코를 고는 행위' 중 일부의 행위를 분리해서 살펴봐도 여전히 '코를 고는 행위'이고 이는 어떤 사건의 일부분의 특성이 전체 사건의 특성과 일치하는 동형 사건의 정의(Krifka 1989)를 만족 시키는 것이다. Kalsang et al. (2013)은 이러한 동형 사건의 특성에 기반하여 코고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그 중의 아주 일부분만 지각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전체 코고는 행위를 전부 지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22a)와 (22b)는 모두 전체 사건을 지각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21a)와 유사하게 IS가 ES를 포함해야만 한다. 따라서 (25)의 조건은 (22)에서 왜 *shag*이 아니라 *dug*만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잘 포착하여 줄 수 있다.

3.2 Lim(2014): '-더'의 적정 조건

Kalsang et al. (2013)이 제시한 ES와 IS의 관계를 통해서 증거성 표지를 구분하는 입장을 받아들여서 Lim(2014)은 한국어의 '-더'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6) 어제 비가 오더라.

(27) a. 어제 비가 왔더라.
b. 내일 비가 오겠더라.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26)과 같이 시제 표지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27)과 같이 ‘과거’나 ‘미래’시제가 실현된 경우의 차이는 전자는 ‘비가 오는 사건’, 즉, 선행명제와 관련된 사건을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이지만 후자는 이를 직접 지각하지 못하고 단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직접 지각을 통한 추론을 통해 인식’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왔다 (Chung 2007, Lim 2010, Lee 2011b, 2013 등). 예를 들어 (27a)의 경우는 비가 온 흔적 (물이 고인 도로 등)만을 직접 지각하여 선행명제와 관련된 사건을 추론하는 것으로, (27b)의 경우는 비가 올 일종의 징후(짙은 구름 등)를 직접 지각하여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이라는 사건을 추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Chung 2007, Lim 2010, Lee 2011b, 2013 등). 하지만 Lim(2014)은 (28)이나 (29)와 같은 문장은 기존의 이론들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8) 철수가 다음 주에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더라. (Lim 2014)

(29) 존이 어제 빨간 셔츠를 입었더라. (Lim 2014)

우선 (28)은 (26)과 다르게 ‘-더’ 앞에 어떠한 시제도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선행명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접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자가 단순히 발표 프로그램에 ‘철수의 이름이 있는 것만을 직접적으로 지각한 상황에서도 (28)과 같은 발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29)는 (27a)와 다르게 과거 시제가 ‘-더’ 앞에 실현되는 경우에도 화자가 ‘존이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을 직접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자가 어제 존이 빨간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도, (29)와 같은 발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문장이 기존의 이론들로는 통합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논의한 Lim(2014)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Chung(2007): 앞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Chung(2007)은 ‘-더’를 증거성 표지로 보지 않고 공간간시과거시제로 분석하였다. ‘-더’는 단지 화자의 지각역이 발화 시점에 선행되어 존재한다는 시제 정보만을 제공하고, 이러한 시공간 내에서 화자가 증거를 직접적으로 획득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더’가 일종의 시제로만 기능한다는 것은 ‘증거성’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독립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Chung(200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30) a. (27a): 어제 비가 오-았-더라 → ‘-더’ 앞에 출현하는 ‘-았-’: 결과 추론
- b. (27b): 내일 비가 오-겠-더라 → ‘-더’ 앞에 출현하는 ‘-겠-’: 합리적 추론
- c. (26): 어제 비가 오-~~어~~-더라 → ‘-더’ 앞에 출현하는 ‘~~어~~’: 직접 증거성

Chung(2007)은 (27)의 추론과 관련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았-’이나 ‘-겠-’을 시제 표지가 아니라 일종의 간접 증거성 표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26)의 해석은 ‘-더; 앞에 있는 ‘영형 태소’가 한국어의 직접 증거성 표지라는 가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Chung(2007)의 이론은 (26)과 (27)의 구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도 (28)과 (29)를 설명할 수 없다. (28)의 경우 Chung(2007)의 분석을 따르면 시제 형태소인 ‘-더’는 ‘철수

논문을 발표하는 사건'과 결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경우는 영형태소(Ø)인 직접 증거성 표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따르면 (28)은 사실과 다르게 '이미 과거에 철수가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직접 화자가 지각했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29)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29)는 간접 증거성 표지인 '-었-'이 '-더' 앞에 사용되었으므로, Chung(2007)의 이론은 화자는 철수가 빨간 셔츠를 입었다는 사건을 절대 직접 지각해서는 안 된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해석과 부합하지 않는다.

(II) Lee(2011a, 2011b, 2013):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Lee(2011a, 2011b, 2013)는 증거성 표지 '-더'를 화자가 '-더'를 포함한 문장을 발화하는 시점 이전에 선행 명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지각했다는 시제에 대한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인식양태 표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왜 (26)의 경우 비가 오는 사건이 발화 시점 이전에 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비가 오는 사건'을 지각하여 증거를 획득하는 시점이 발화 시점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 (27a)의 경우에 왜 일종의 '추론'의 의미가 도출되는지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우선 (27a)의 경우에 '-더'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지각한 순간이 발화 시점 보다 이전, 즉 과거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Lee(2011a, 2011b, 2013)는 이렇게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 과거 시제 '-었-'이 한 번 더 결합하는 경우에는 과거 시제 '-었-'이 결합한 사건(즉, 비가 오는 사건)이 '-더'에 의해서 야기된 증거를 직접 지각하는 순간(즉, 예를 들어 빗물이 보인 웅덩이를 지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행 시점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 비가 내린 사건'이 '비가 내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지각하는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비가 내린 사건'이 끝난 후에야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지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제 관계는 일종의 '추론'이 개입되어 실제 선행명제를 직접 지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를 획득하는 상황에서만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인간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이론은 (29)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따르면 (29)에서 사용된 '-었-'은 화자가 존이 빨간 옷을 입었다는 증거를 직접 지각을 통해 획득한 시점 보다 이전에 실제 '존이 빨간 옷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따르면, 실제 해석과 다르게 화자는 '존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을 지각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이론들의 문제점을 모두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Lim(2014)은 한국어의 '-더'는 티베트어의 *shag*과 유사하지만 *dug*의 성격을 일부분 공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26)을 Kalsang et al. (2013)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IS가 ES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가 왔다는 것에 대한 진리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비가 온 상황'이 ES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IS도 화자의 직접 지각을 통해 '비가 온 상황'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ES가 '최소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ES가 IS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7a)는 ES가 IS를 포함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예문은 화자가 비가 온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비가 온 흔적만을 보고서도, 예컨대 마당이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을 보고서도 적절하게 발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마당이 물에 젖었다는 사실' 자체가 (27a)의 '-더'의 선행 명제인 '어제 비가 왔다는' 필수적으로 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마당이 물에 젖은 것은 비가 와서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당이 물에 젖은 것을 보고 화자가 (27a)를 발화할 수 있으려면 화자가 마당이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어제 비가 왔다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상황 의미론의 입장에서 보

면 '비가 왔고, 그 결과로 땅이 젖었다'라는 확장된 '상황'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27b)도 유사한 방식으로 ES가 IS를 포함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가 '길은 구름이 낀 상황'을 '길은 구름이 꺼져서 그 결과로 비가 내린 상황'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하면 (27b)의 단언은 정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26)과 (27)에 대한 분석이 '-더'의 적정 조건이 ES가 IS를 포함할 수도 있고, IS가 ES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서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과생성(overgeneration)이 야기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Lim(2014)는 '-더'의 적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31) '-더'에 대한 적정 조건
 $ES \supseteq IS$

즉, 티베트어의 *shag*과 적정 조건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shag*과 다르게 ES와 IS가 '동일한 경우'에도 '-더'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26)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때 '-더'는 티베트어의 *dug*과 다르게 IS가 ES를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 IS와 ES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ES와 IS가 모두 '비가 온 상황'이라는 최소 상황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26)이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1)과 같은 '-더'에 대한 적정 조건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설명하는 데에도 장점을 가진다.

- (32) 철수는 어제 밤에 코를 골더라. (Lim 2014: 128, ex. 12)

(32)는 '-더'가 티베트어의 *shag*과 다르게 ES가 IS를 포함하지 않는 동형 사건과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31)과 같이 IS와 ES가 동일한 경우에도 '-더'가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shag*과의 차이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의 관계'를 통한 적정 조건을 통해서 (28)과 (29)도 모두 쉽게 설명될 수 있다. (28)의 경우는 프로그램에 '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한 상황(S₁)과 '철수가 일주일 후에 실제로 발표하는 사건 (S₂)'이 ES를 구성한다고 보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IS는 S₁으로 구성되므로 (31)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29)는 '입다' 동사의 내재상(inner aspect)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된다. 예를 들어 '빨간 셔츠를 입다와 같은 사건은 '빨간 셔츠를 입는 행위 사건'과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결과 상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복합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김윤신 2004).

- (33) 철수는 빨간 셔츠를 입고 있다. (Lim 2014: 131, ex. 16)
 a. 철수는 30초 동안 급하게 빨간 셔츠를 입고 있었다.
 b. 철수는 어제 하루 종일 빨간 셔츠를 입고 있었다.

'입다와 같은 동사는 (33)에서 볼 수 있듯이 진행을 나타내는 상 표지 '-고 있-'과 결합했을 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33a)에서 볼 수 있듯이 진행상이 '옷을 입는 과정'에 연결될 수도 있고 (33b)와 같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의성은 이 동사가 두 개의 하

위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사건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어 준다(김윤신 2004).

이러한 입장에서 (29)에 사용된 '-더'의 걱정 조건을 살펴보자. 우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9)의 두 하위 사건은 어느 것이든 하나의 '상황'에 대응하여 단독으로 IS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가 철수가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과정을 지각하던 철수가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결과 상태를 지각하던 모두 (29)의 선행명제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충분한 것이다.

이와 다르게 '입다와 관련된 복합 사건과 관련된 진리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하위 사건이 연결된 복합 사건 전체에 대응하는 '상황'이 하나의 확장된 상황으로서 ES를 구성해야 한다. '결과 상태가 없는 과정에 대응하는 상황'만으로, 혹은 '과정이 없는 결과 상태에 대응하는 상황'만으로는 (29)의 선행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ES가 IS를 포함하게 되므로 (31)이 만족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4. '-더'의 걱정 조건과 1인칭 제약

3장에서는 상황 의미론에 기반하여 직접 증거성 표지 '-더'의 걱정 조건을 살펴 보았다. 4장에서는 이러한 걱정 조건을 기반으로 '-더'의 1인칭 제약의 동인을 설명할 것이다. 술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ES와 IS에 의하여 '-더'의 1인칭 제약의 적용조건이 달라짐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특성을 살펴 보고,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나타나는 '-더'의 걱정 조건과 1인칭 제약과의 관련성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왜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아닌 다른 술어가 선행명제에 사용될 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4.1 화자 지향 술어의 특성

1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화자 지향 심리 술어는 경험주가 화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 (34) a. (내가)/#네가/#영희가 외로워! (=4)
b. (내가)/#네가/#영희가 추워!

하지만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은 영어 등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매우 특이하다 (Kwon 2014).

- (35) a. John is cold.
b. She's feeling lonely right now. (Kwon 2014)

이러한 차이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허세문&박유경(2015)에서는 이러한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특성이 (36)과 같은 일반 평서문의 걱정 조건을 통해 쉽게 포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시도하였다.

- (36) 걱정 조건 (평서문)
화자는 발화한 문장인 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6)은 화자가 문장이 발화하는 경우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4)가 발화되기 위해서 ‘화자’는 경험주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적인 심리 상태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화자가 경험주의 내적 심리 상태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34)의 문장이 적절하게 발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37)을 통해 (34)와 (35)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Kwon 2014).

- (37) a. 한국어의 경우 특정 심리 술어가 기술하는 경험주의 내적 심리 상태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access)하여 판단할 수 없다.
- b. 하지만 이러한 제약은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36)과 (37)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우선 화자 지향 심리 술어는 모두 경험주의 내적 심리 상태를 기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Chung(2007)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때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 행동주성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경험주가 어떤 심리 상태를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어의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37a)의 속성을 가진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화자가 화자 지향 심리 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주의 내적 심리 상태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36)의 적정 조건이 어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36)이 지켜지기 위한 내적 심리 상태에 대한 접근은 화자와 경험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허세문&박유경(2015)의 화자 지향 심리 술어에 대한 설명은 상황 의미론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38) a. 한국어의 화자 지향 심리 술어는 ‘경험주가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상황’과 ‘화자가 내적 상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평가(evaluation)하는 상황’, 이 두 독립적인 상황이 다 있어야 한다.
- b. 이때 화자가 경험주와 동일한 경우에만 화자에 의한 직접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c. (38a)와 (38b) 모두를 만족해야 (36)의 적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복합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특성 때문에 ‘화자=경험주 제약’이 지켜져야만 평서문의 적정 조건이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11 (38)은 다음과 같은 예외 현상에 대한 설명과도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i) (?)철수가 외로우-었-어.

(ii) 철수가 외로운 것 같아.

(i)의 경우는 ‘화자’가 ‘철수가 과거에 외로운 심리 상태를 경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면 적정 조건이 만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심리 상태에 대한 판단은 심리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Kwon 2014). (ii)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추가된 인식양태 의미에 의해서 선행명제의 적정성이 화자의 직접적인 접근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좀 더 외부적인 증거나 판단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식양태의 의미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화자의 믿음 세계(doxastic world)에 기반하여 선행명제를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믿음 세계의 정보는 직접적인 내면 상태에 대한 접근이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ark & Hoe 2015; cf. McCready 2007).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남겨 두도록 하겠다.

4.2 화자 지향 술어: '-더'의 적정 조건과 1인칭 제약

'-더'의 1인칭 제약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먼저 4.1.에서 논의한 화자 지향 술어의 특징에 기반하여 다음의 문장 (39)가 '-더'의 적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39) #내가 외롭더라.

우선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특성상 이 문장이 발화되기 위해서는 (40)에 기술되어 있는 두 상황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¹²

(40) 내가 외롭다.

- a. S_1 = 경험주가 외로운 내적 상태를 경험하는 상황
- b. S_2 = 화자가 경험주의 내적 상태에 직접 접근하여 평가하는 상황

즉,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화자=경험주 제약'의 설명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험주인 화자가 외로운 내적 상태를 경험하는 S_1 과 화자가 경험주의 내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평가하는 S_2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상황 중에서 ES는 엄밀하게 말하면 S_1 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S_2 는 문장의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가 이 문장을 적절하게 발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9)에 대한 ES가 적절한 '최소 상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면 이는 S_2 를 배제한 S_1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IS는 ES와 그 성격이 다르다. 우선 '-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행 명제 그 자체인 선행 명제를 추론할 수 있는 간에 IS가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앞에서 간략히 논의하였듯이, 상황 의미론에서 '상황'에 대한 개념은 매우 자유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각 문장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관련된 '상황들'은 모두 각각의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전술한 대로 IS는 화자가 맥락상의 공동 기반을 통해서 확인(identify)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IS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하에서 보면 (39)의 IS는 S_1 만이 아니라 S_2 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S_2 의 정보가 없이는 S_1 은 화자가 사용할 수 없는 정보일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S_1 이 화자가 맥락에서 확인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S_2 는 일종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즉, 이는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가진 '경험주=화자 제약'과 관련된 의미적인 특성이 적절한 IS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S_1 과 S_2 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의미적 제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S_2 자체가 일종의 '증거'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S_2 는 S_1 이 적절한 증거로 기능하기 위한 일종의 선행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39)의 ES와 IS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¹³

12 한 익명의 심사자는 S_2 가 IS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고, 그 이유를 S_2 가 그 자체로는 증거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화자가 경험주의 내적 상태에 접근"하여, 예컨대 '경험주가 외롭다'라는 사실을 습득하는 것이 그 자체로 증거를 구성한다는 것이 바로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특이성 자체가 증거를 구성하는 일부로 간주되는 것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13 (41)은 경험주의 내적인 경험이 일종의 '직접 지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 (41) a. (39)의 ES = S₁
- b. (39)의 IS = S₁S₂

(41b)의 기술은 S₂ 그 자체는 독립적인 증거가 아니지만 S₁의 전제 조건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경우 (41)은 ES가 IS와 동일하지도 않고 또 ES가 IS를 포함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S₂는 독립적인 증거이자 하나의 독립적인 ‘상황’으로 구분되지는 못하지만, 이때의 IS가 확실히 ES보다는 더 큰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더’의 적정 조건은 위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Chung(2007)의 판단과 다르게 (38)은 어떠한 배경도 없는 상황(out of the blue)에서는 적정 조건을 어기는 일종의 비문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1장에서 제시한 수식절의 차이에 따른 문법성의 변화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42) a. 영희가 곁에 없으면 내가 외롭더라. (= 6)
- b. #영희가 곁에 없을 때 내가 외롭더라.
- c. 영희가 곁에 없을 때마다 내가 외롭더라.

먼저 (42b)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쉽게 설명된다. 이를 위해서 명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표(index)를 k라고 하고, 이 k를 <w,t,s>의 순서쌍(tuple)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부사절은 k와 상관 없이 단지 특정 시점을 명세해주는 일종의 한정표현(definite description)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식되는 주절이 적정 조건에 의해서 이미 비문으로 판단된다면, 이때 주절의 선행명제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더 자세하게 명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42a)와 (42c)의 경우에는 달라진다. 이 경우 두 수식절은 k에 대한 전칭 양화(universal quantification)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선행명제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43) (42a)의 의미:
 - a. 과거에 영희가 곁에 없었던 경우에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화자가 외로움을 느낀 적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었고,¹⁴

다. 그러나 경험과 직접 지각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므로 (송재목 2007, Speas 2010 등),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4 이러한 해석은 다양한 언어에서 나타나는 사실성 함의(actuality entailment)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i) a. Gianni ha potuto parlare a Maria, #ma non lo ha fatto.
 Gianni can-pst-*pfv* talk to Maria but not it do-pst-pfv
 ‘Gianni was able to talk to Maria, #but he didn’t do it.’
- b. Gianni poteva parlare a Maria, ma non lo ha fatto.
 Gianni can-pst-*impf* talk to Maria but not it do-pst-pfv
 ‘Gianni was able to talk to Maria, but he didn’t do it.’ (Hacquard 2006)

(ia)에서 보듯이 프랑스어의 경우 능력(ability)와 관련된 양태범주가 완료상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행 명제와 관련된 사건이 과거에 실제 한번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강하게 함축한다 (Bhatt

b. 동일한 조건이 만족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화자가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44) (42c)의 의미: 과거에 영희가 곁에 없었던 모든 경우에 화자가 외로움을 느꼈었다.

본 논문은 (43)와 (44)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절이 전칭 양화의 기능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더'의 영향권을 가정할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이 수식절에 의해서 이미 양화된 선행명제에 '-더'가 결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 (45) a. [[영희가 곁에 없으면 내가 외롭]-더]-라
b. [[영희가 곁에 없을 때마다 내가 외롭]-더]-라

이렇게 수식절이 주절에 대한 전칭 양화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더'가 '수식절+주절'을 영향권 안에 가진다면 이 경우 ES와 IS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45a)의 ES는 더 이상 화자인 경험주가 외로운 내적 상태를 경험 하는 상황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45a)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영희가 곁에 없는 각각의 경우에 모두 '화자가 외롭다는 내적 상태를 경험 했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판단(epistemic judgement)가 추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내적 경험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이러한 내적 경험을 겪었는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ES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 (46) (45a)의 ES: $S_1 + S_3$
a. S_1 = 각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경험주가 외로운 내적 상태를 경험하는 상황
b. S_3 = 조건절의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마다 화자가 경험주의 내적 상태가 '참인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판단'.

그리고 이 때 IS는 (46)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 (47) (45a)의 IS: $S_1 S_2$
a. S_1 =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경험주가 외로운 내적 상태를 경험하는 상황
b. S_2 = 화자가 경험주의 내적 상태에 직접 접근하여 평가하는 상황

우선 실질적인 화자의 지각에 의한 증거라는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은 경험주의 실제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S_1 으로 한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S_1 이 IS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S_2 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41b)의 경우와 동일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45a)의 경우도 현실 세계에서 적어도 한번은 실질적으로 경험주가 외로움을 직접 경험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하므로 S_2 가 선행 조건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99, Hacquard 2006 등). 하지만 (ib)에서처럼 동일한 양태 범주가 미완료상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함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양태범주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능 세계를 통해 평가되므로 관련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났었다는 의미가 도출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양태 표지가 완료상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의미가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성 함의와 증거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ES와 IS가 구성되면 외현적으로는 ‘더’의 적정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서 보듯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 (48) a. #철수가 외로워. (=15)
- b. 철수가 외로운 것이 틀림 없어.

- (49) a. #철수가 추워.
- b. 철수가 추우면 직접 문을 닫을 거야.

앞에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경험주=화자 제약’은 다른 인식양태소의 영향권 내에서는 쉽게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므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각주 11 참조), 적어도 (48b)나 (49b)와 같은 현상은 S₃와 같이 인식적인 판단이 해석의 과정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경험주=화자 제약’이 동일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경험주=화자 제약’이 약화된다면 IS에서 S₁이 적절한 증거로 기능하기 위해서 S₂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므로 (45a)의 IS는 (50)으로도 충분해진다.

(50) (45a)의 IS: S₁

즉, (50)은 (46)에 포함되므로 왜 (45a)의 경우 ‘더’의 적정 조건이 만족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45b)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도 수식절에 의해서 전칭 양화가 일어나므로 각 상황마다 경험주의 내적 상태가 ‘참인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판단’이 ES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IS가 ‘경험주=화자 제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험주의 직접 경험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일반 행위/상태 동사: ‘더’의 적정 조건과 1인칭 제약

4.2절에서는 1인칭 제약과 관련하여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더’가 같이 사용될 때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더’가 가지는 적정 조건을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4.2절의 논의가 ‘더’가 가지는 1인칭 제약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아닌 일반적인 행위/상태 술어가 사용되는 경우 술어에 특성에 의해서 특별한 ES와 IS가 형성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1인칭 제약도 유사하게 ‘더’의 적정 조건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 (51) a.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 b. 네가 학교에 가더라.
- c. *내가 학교에 가더라.

이를 위해서 우선 (51a)의 ES와 IS를 생각해 보자. 우선 (51a)의 선행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최

소 상황은 ‘철수가 학교에 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IS는 동일하게 화자가 ‘철수가 학교에 가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지각하여 얻은 증거로 설명될 수 있다. 즉 ES와 IS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51c)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우선 (51a)와 비교해서 보면 (51c)의 ES와 I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52) a. ES: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b. IS: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하지만 이 경우에 IS를 구성하는 상황은 화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증거와 대응된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기 자신이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송재목2007 등). 즉,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했던 것처럼 ‘-더’의 IS가 화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각되고, 또 문맥적으로 적절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면 (52b)는 이러한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는 못하는 것이다.

물론 화자는 ‘학교로 가는 길에 있는 이정표’ 등의 다양한 부수적인 지각을 통해서 (52b)가 추론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지각을 통해 획득된 다른 증거들에 기반하여 직접적으로 지각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맥락상 관련되어 있는 상황(contextually relevant situations)라면 IS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Kalsang et al. 2013).¹⁵

하지만 이렇게 주변적으로 화자가 획득한 증거들에 의해 적절한 IS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하여도 (53)에서 볼 수 있듯이 ES가 IS를 포함하거나 서로 같아지지 못한다.

- (53) a. ES: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b. IS: 학교 가야 하는 시간,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이정표, 학교의 정문, 학교 건물, ...,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은 이를 도출하는 근거인 다른 증거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IS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ES는 언제나 IS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51c)에 나타나는 1인칭 제약은 ‘-더’의 적정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IS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왜 다양한 1인칭 제약의 예외 현상이 존재하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54) a. 나 혼자만 학교에 가더라. (Sohn 1975) (=3)
b. 세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춤을 잘 추더라. (김차균 1980)
c. 내가 영희보다 빨리 달리더라. (Lee 2011a)

15 각주10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Kalsang et al. (2013)은 직접 증거성과 간접 증거성의 개념 자체를 ES와 IS의 관계를 통해서 포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증거가 화자의 실질적인 지각에 의해서 획득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의 IS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Kalsang et al. (2013)은 티베트어의 직접 증거성 표시 ‘*dug*’의 경우 초점과 관련된 맥락에 의해서 지각되지 않은 증거가 포함되어 IS가 확장되는 현상도 다루고 있다.

우선 (54)에 있는 모든 사건들의 경우 ES는 ‘화자의 행위나 상태’와 관련된 사건만으로는 진리값을 판단할 수 없다. ‘화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객체(individual)들 과의 비교/대조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54a)의 경우 E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55) (54a)의 ES:
-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
 - 영희가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
 - 민수가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
 - ,
 - 화자가 자신 외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사실을 아는 상황.

즉, 각 개개인이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사실이 추론되어야 (54a)의 선행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IS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 (56) (54a)의 IS:
-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
 - 영희가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
 - 민수가 학교에 가지 않은 상황
 -¹⁶

이 경우도 역시 ‘화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직접 지각할 수는 없지만 문맥적으로 관련된 ‘상황’으로 IS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직접 지각에 의해서 얻게 되는 다른 증거들 모두 IS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54a)의 ES와 IS가 구성된다면 이는 ‘더’의 적정 조건을 만족시킨다. IS가 ES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54b)와 (54c)도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ES의 확장을 통해서 ES가 IS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따르면 화자 지향 심리 술어에서 나타나는 ‘더’의 1인칭 제약과 다른 일반적인 행위/상태 동사와 나타나는 ‘더’의 1인칭 제약이 모두 ‘더’의 적정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모두 ‘더’의 적정 조건이 만족되는 환경이 구성되면 1인칭 제약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두 경우에 ES 와 IS의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1인칭 제약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왜 (57)이 모두 비문법적인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57) a. #공부를 해야 하면, 내가 학교에 가더라. (=7)

16 한 익명의 심사자는 (55)와 (56)에서 모두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이 포함되기 때문에 (51c)에 대한 (52)의 설명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확실한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55)와 (56)의 경우 ‘만’의 의미를 따져 볼 때 ‘만’이 사용된 명제가 단언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라는 점에서 (exclusive particle에 대한 표준적인 의미론)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 b. #공부를 해야 할 때, 내가 학교에 가더라.
- c. #공부를 해야 할 때마다, 내가 학교에 가더라.

전술하였듯이 (57)은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경우와 다르게 수식절의 특성과 상관없이 언제나 비문이다. 이 중 (57b)는 시간 부사절의 특성을 통해서 화자 지향 심리 술어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으므로 (57a)와 (57c)의 비문법성, 특히 (57a)의 경우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57a)의 E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8) (57a)의 ES: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화자가 조건절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모두 학교에 갔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적인 추론.

하지만 이렇게 ES가 확장될 수 있다 하여도 여전히 (57a)의 IS는 쉽게 형성할 수 없다. 모든 경우에 화자는 실제 자신이 학교에 간 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지각에 의해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설령 이러한 증거를 추론을 통해서 도출해 낸다 하더라도, 이때의 IS는 이러한 추론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59) (57a)의 IS: (화자가 학교에 간 상황)
학교 가는 길의 이정표, 학교 건물, ……,

즉, IS가 ES에 의해서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57c)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아무로 수식절에 의해서 전칭 양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성이 적절한 IS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남은 문제

본 논문은 상황 의미론에 기반한 ‘더’의 적정 조건을 통해서 ‘더’의 1인칭 제약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 ‘더’는 1인칭을 주어로 갖지 못하는 제약을 보이는데, 기존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자 지향 심리 술어와 함께 나타날 때는 1인칭 제약이 약화될 수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더’의 1인칭 제약을 약화시키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어떤 종류의 부사절과 함께 나스냐에 따라 달라지는 1인칭 제약의 해소 여부에 집중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화자 지향 심리 술어가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다른 술어가 쓰였을 때와는 다른 상황을 형성하며 부사절의 특성에 따라 ‘더’의 1인칭 제약 해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Lim(2014)의 논의를 받아들여 증거성 표지 ‘더’의 적정 조건은 ES가 IS를 포함하거나 ES와 IS가 동일한 경우에 만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화자 지향 심리술어와 전칭 양화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와 같은 적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 행위/상태술어의 경우에 ‘더’의 1인칭 제약이 드러나는 이유도 ‘더’의 적정조건을 통해서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동시에 술어의 특성에 따라서 IS와

ES의 구성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왜 1인칭 제약을 야기/해소하는 환경이 화자 지향 술어가 나타났을 때와는 다른지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증거성 표지와 1인칭 제약에 대한 다양한 유형론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고 있듯이, 1인칭 제약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형론적 다양성이 존재한다(송재목 2007, Lee 2011a). 각 증거성 표지의 적정 조건과 각 언어에 존재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술어들의 상관 관계를 통한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본 논문은 Lim(2014)의 입장을 통해서 ‘-더’와 과거/현재/미래 시제와의 상관 관계를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Lim(2014)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듯이, ‘-더’가 왜 발화 시점보다 선행하는 증거 획득 시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 (60) a. #영희가 곁에 없으면, 내가 외로우-었-더-라.
b. #영희가 곁에 없을 때마다, 내가 외로우-었-더-라.
- (61) a. 영희가 곁에 없으면, 내가 외롭-겠-더-라.
b. 영희가 곁에 없을 때마다, 내가 외롭-겠-더-라.

문제가 되는 것은 본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더’의 적정 조건만으로는 (60)과 (61)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둘의 ES와 IS가 서로 다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구성될 것이므로, 왜 어느 한쪽만이 적정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더’가 가진 시제 정보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제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도록 하겠다.

<References>

김세중. 1994. 국어 심리 술어의 어휘 의미 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윤신. 2004.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사건함수 ‘-고 있다’의 기능, 형태론 6: 43-65.
 김차균. 1980. 국어 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45-116.
 송재목. 2007. 증거성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한국어, 몽골어, 티베트어를 예로 들어. 형태론 9: 1-23.
 송재목. 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27-53.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허세문&박유경. 2015. 원인질의 의미와 시점. 한글 308: 193-232.
 Barwise, Jon and John Perry. 1983. *Situations and attitudes*. Cambridge: MIT Press.
 Bhatt, Rajesh. 1999. *Covert Modality in Non-Finite Contex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hung, Kyung-Sook. 2007. Spatial Deictic Tense and Evidentials in Kore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5: 187-219.
- Chung, Kyung-Sook. 2011. Korean Evidential and Epistemic Modals. Paper presented in the 2011 J-K Preconference Workshop. Seoul National University.
- Elbourne, Paul. 2005. *Situations and individuals*. Cambridge: MIT Press.
- Faller, Martina. 2002. *Semantics and Pragmatics of Evidentials in Cuzco Quechua*.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acquard, Valentine. 2006. *Aspects of Modality*. Doctoral Dissertation, MIT.
- Kalsang, Jay Garfield, Margaret Speas, and Jill de Villiers. 2013. Direct evidentials, case, tense and aspect in Tibeta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1: 517-561.
- Karttunen, Lauri. 1972. *Possible and must*. In J.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1, 1-20, New York: Academic Press.
- Kim, Young-Joo.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emantic levels of repres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won, Iksoo. 2014. The viewpoint shifter *-cha-* in Korean and how it affects causal event structure, *Language Science* 42: 30-42.
- Kratzer, Angelika. 1989. An investigation of the lumps of thought.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607-653.
- Kratzer, Angelika. 2014. Situations in natural language semantics. In Edward Zalta (e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4 edition). Available at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4/entries/situations-semantics/>
- Krifka, Manfred. 1989. Nominal reference, temporal constitution and quantification in event semantics. In Renate Bartsch, Johan van Benthem, and P. van Emde Boas (eds.), *Semantics and contextual expressions*, 75-115, Dordrecht: Foris,
- Lee, Chungmin.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1: 256-296.
- Lee, Chungmin. 2006. Contrastive Topic/Focus and Polarity in Discourse. In K. von Stechow and K. Turner, (eds.), *Where Semantics Meets Pragmatics*, 381~420. Elsevier.
- Lee, Chungmin. 2010. Evidentials and Epistemic Modal in Korean. In *Proceedings of PACLIC 24*, 193-202.
- Lee, Chungmin. 2014. Evidentials and Modals: What Makes Them Unique. Paper available at <http://semanticsarchive.net/Archive/GQwNGI0Y/paper.pdf>
- Lee, Jungmee. 2011a. A modal account of 'first person' constraints on evidential sentences. Paper presented in the 2011 J-K Preconference Workshop.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Jungmee. 2011b. Evidentiality and Temporality: A Case Study of *-te* in Korean, In O. Bonami and C. Hofherr (ed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8, 287-311.
- Lee, Jungmee. 2013. Temporal constraints on the meaning of evidentiality. *Natural Language*

- Semantics* 21: 1-41.
- Lim, Dongsik. 2010. *Evidentials and Interrogativ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Lim, D. 2014. On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spects of Predicates and Evidentiality. *Eoneohag* 70: 117-140.
- Matthewson, Lisa, Henri Davis, and Hotze Rullmann. 2007. Evidentials as epistemic modals: Evidence from St’át’imcets. *The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7: 201-254.
- McCready, Eric. 2007. Context Shifting in Questions and Elsewhere, In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11: 433-447.
- Murray, Sarah. 2010. *Evidentiality and the Structure of Speech Acts*.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 Park, Yugyeong and Semoon Hoe. to appear. What is the reason to give a reason? To appear in the Proceedings of the LENLS 2015.
- Sohn, Ho-Min. 1975. Retrospection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1: 87 - 103.
- Speas, Margaret. 2010. Evidentials as generalized functional heads. In Anne-Marie di Sciullo (ed.), *Interface legibility at the edge*, 127 - 1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접수 일자: 2015년 11월 14일

수정 일자: 2015년 12월 14일

게재 결정: 2015년 12월 21일